



지난 7월 21일,『삼성전자·평택 소통협의회』 7월 정기 회의 및 이임식이 진행됐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19로 보류된 정기회의가 약 6개월만에 열리면서 반기운 얼굴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위원들은 회의 전 중식간담회를 가지며 회포를 풀고, 공사하고 있는 P2라인 전경을 확인하는 투어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8년 8월 출범한 평택 소통협의회 1기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진행됐는데요. 반기움으로 가득했던 회의 현장을 함께 살펴볼까요?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리는 기존보다 더 간격을 두었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 한 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진수 의장의 인사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으로 언론기사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서성욱 간사는 현재 삼성전자 평택 생산라인은 코로나19에도 단 한 명의 임직원 확진자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코로나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투자에 대한 언론보도와 같이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지역 경제 발전에 힘쓰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레고로 만든 클린룸' 영상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 영상은 반도체 생산에서 중요한 '클린룸'을 그린 영상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성을 알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평택 P1 생산라인을 배경으로 제작이 되었음을 홍보하였고, 평택 위원님들께서도 우수한 생산시설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참고 미세먼지 수치 '0'! 아주 작은 먼지도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



| "우선 매일 수 만 명이 오가는데도 큰 문제 없이 코로나19를 이겨내주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평택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하고자 물심양면 힘써주어 고맙습니다.『삼성전자·평택 소통협의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니,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덕면(前)이장협의회 회장 안산호 대표위원



| "작년에는 삼성 임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활동이 없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기업 임직원들과 주민들이 모두 화합하는 활동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고덕면 방축2리 이장 현광수 위원



1기 위원들의 소감에 이어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진수 의장은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참석하신 위원들은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소통협의회의 초석을 다져준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함께 발전하는 삼성전자·평택 소통협의회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